

해경IN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소식지

VOL.3

KOREA COAST GUARD NEWSLETTER

2023. 10



해경IN

해양경찰 + IN(人)의 합성어로 해양경찰의 다양한 정보와 사람을 나타내며,
영어 IN은 Internet(인터넷, 온라인), Information(다양한 뉴스와 정보) 등
앞으로 해양경찰이 나아갈 꿈과 희망의 100년을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자는 뜻입니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Contents



1953 - 2023
해양경찰 70주년

숫자 '7'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모습을 의미

숫자 '0'

서클형태로 해양경찰의 과거(도전과 헌신)는 Yellow, 현재(기본과 신뢰)는 Red, 미래(첨단과 유능)는 Blue 색상을 오버랩, 해양경찰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표현

하단의 Dark Blue 그라데이션 띠

해양환경의 의미로, 맑고 푸른 대한민국의 안전한 해양에 떠오르는 해양경찰의 위상을 상징

04 해양경찰 국민만족도를 소개합니다

06 국민만족도를 높인 해양경찰 인터뷰

08 '23년 국민만족도 우수·개선사례

국민 불편사항 개선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중심의 개편
- 어선원 해기사 면허 발급 갱신, 이제 더 쉽고 빠르게
- 수상안전교육, 고민은 NO!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 시각적 경고로 차량 침수사고 예방, 선착장 침수 경계선 도색 도입
- 연안안전교육도 쇼츠(Short)로~ 안전문화 확산에 새로운 바람
- 민·관이 하나된 마음으로 만드는 깨끗한 바다

어린이 맞춤 해양안전교육

- 축제처럼 즐기며 배우는 해양안전, 동실동실 해양페스타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

16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17 부록

- 해양경찰 연혁
-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
- 해양경찰 국민패널 축하메시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가슴 깊이 듣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식을 줄 모르고 떠오르는 태양의 열기로 가득했던 여름이 지나고, 옷깃을 여미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소식지는 세 번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해양경찰 국민만족도조사에서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경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시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5만여명의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해양경찰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신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셨고, 만족도조사계에서는 맞춤형 컨설팅, 정책토론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1만3천여명 해양경찰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국민 여러분과 우리 해양경찰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해양경찰 국민만족도를 소개합니다



해양경찰 국민만족도란?

국민만족도란 해양경찰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현재 '21년 8월 제정한「해양경찰 국민만족도조사에 관한 규칙」을 조사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만족도 조사의 종류

치안서비스 조사 :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한 국민에 대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체감안전도 조사 : 해양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관할 해역이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정책 모니터링 : 해양경찰의 주요정책 시행 전·후 국민과 직원의 의견 조화, 제시된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조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참여확대를 위한 국민패널 운영



해양경찰 국민패널 「바다소리」란 무엇인가요?

해양경찰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現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22. 11월 해양경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 등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 요원입니다.



「바다소리」 의미란?

「바다소리」의 의미는 ‘해양 관련 모든 의견을 담는다’는 내용으로 전 직원과 국민패널 대상 명칭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국민패널의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경찰 국민패널 주요활동



정책·사업
모니터링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효성 파악, 긍정&부정 의견수렴 등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아이디어
제안

해양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개선 아이디어 제공



국민패널 F.G.I
(Focus Group Interview)

「국민패널↔정책부서」간 주요정책 등 조사목적과 관련된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개선과제 발굴



홍보
채널

국민패널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해양경찰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능동적 마케팅

두 번째 이야기.

국민만족도를 높인 해양경찰 인터뷰

소식지에 수록된 '국민의 목소리'는
매월 치안서비스 조사 시 수집한 V.O.C
(Voice of Customer)와 국민패널
정책토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35년차 베테랑,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지난 3월 레저과 업무를 보기위해 방문했을 때... (중략)...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자 민원실 여자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시간내어 방문한 하루일과가 헛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22. 4. 13.) 등 **’22년 3회** 〰

“통영해경 소속 민원 담당하시는 분, 제가 민원을 넣어서 처리하기 곤란했을텐데도 개선과 처리결과를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23. 4. 14.) 등 **’23년 5회** 〰

INTERVIEW.
칭찬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 민원실
이민숙 주무관



’22~’23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8회 ‘긍정’ 의견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9년 입사하여 현재 통영해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숙 주무관입니다. 민원 담당자는 기관의 얼굴임을 자각하고, 해양경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의 사소한 부분도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매년 반기별 도서벽지 등에 찾아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이동민원실이요? 어떤 활동을 하는건가요?

통영해양경찰서 경찰관과 지자체·민간단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관내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도서주민의 고충 처리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접수 및 해결, 해안가 정화활동, 집 고쳐주기, 미용서비스, 장수사진 촬영 및 위문품 전달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3. 5. 27.(토)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이동민원실 운영 시 프랑스 방송인 암브레(Ambre)가 참여하며 통영해양경찰서 이동민원실 내용이 유럽과 프랑스 문화권으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Q. 국민의 ‘긍정’ 의견을 2년간 8차례나 받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민만족도 조사 시 많은 국민께서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다니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해양경찰서 방문 민원인은 언제나 “행복하다, 편안하다, 기분이 좋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준 따뜻한 구급요원



“해경 응급의료 선생님께서 오시는 중에 신고자 상태를 아시려고 전화를 해주어 마음에 안심
이 되었고, 또한 번개처럼 와 주셔서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할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지긋한 어른처럼 너무 친절하고 차분하고 공손하게 이
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상을 이런 분들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섬 사람들의 생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해경 응급 구조대 여러분이
있어 섬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3. 7. 21.) 〰

INTERVIEW.
칭찬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진도구조거점파출소
김주형 순경



’23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상황처리 우수 관련 ‘긍정’
의견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급응급구조사로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3년간 근무 후 해양경찰 특임 구급경과로 2022년 임용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진도구조거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김주형입니다.

Q. 사건 당일 상황이 어땠나요?



’23. 6. 27.(토) 간조로 인해 옥도항으로 계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안구조정 선수만 붙여서 간신히 섬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벌에 쏘인 환자라 하여 가는 도중 전화로 환자가 당황하지 않게 응급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인공소생기 장비, 수액, 약물(에피네프린) 등을 준비하여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도 대비하였습니다.

간신히 섬에 도착하여 환자에게 접촉해 우선적으로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 산소포화도, 체온, 혈당)를 측정하고 결과 다행히 쇼크 증상은 보이지 않아 안심할 수 있었고 환자분에게도 차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벌에 쏘였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벌에 쏘인 손등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셔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를 보니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살고 계신 모습에 마음 한켠이 아려오기도 하였습니다. 환자가 불안해 하실까봐 지속적으로 편안한 대화를 하였고, 근처 조도 보건소와 의료 컨택을 하며 응급처치를 하였더니 큰 이상이 없이 상처가 가라앉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Q. 상황처리를 하면서 느낀점 및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도파출소 관할은 총 230여개 섬으로 이루어져 구역이 매우 넓어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에 고령령층, 관광객 수요가 많아 ’20년 92건, ’21년 142건, ’22년 150건 등 응급환자가 지속 발생하여 목포해양경찰서 닥터경비정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3년간 근무를 하였지만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변수에 진도파출소 근무 1년간 처음 겪어보는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팀원들과 훌륭한 팀워크로 상황대응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항상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근무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3년 국민만족도 우수·개선사례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1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중심의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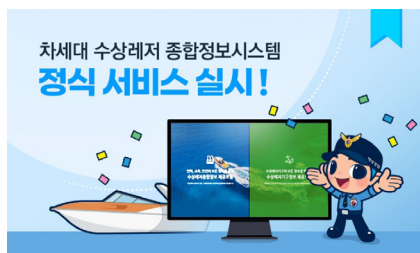
자동차 검사 안내처럼~ 선박 안전검사도~
사전고지 해주셨음 합니다~

원거리 신고에 보트 안전검사 일정도 접목하여
안전검사 일정이 다가오는 보트에 대해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하길 바랍니다.

보트 안전검사는 5년에 한번 받다보니 잘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지난번 검사 미실시로 조사받고 회사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처럼 미리 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불편사항 개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안내 전자
고지 및 간편 로그인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http://boat.kcg.go.kr>

1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부터 등록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방문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

현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서비스 이용가능!

2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가입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력인사 이용 시 PASS,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여 이용 가능

다양한 양자 서비스를 온라인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디지털 뢰패스를 도입

3 전자 고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여 출이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 해주는 전자고지 형식의 서비스 제공

4 전자문서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에 대한 보안 걱정 하지 마세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전자문서에 보안강화

원본 검증 위·변조 방지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2

어선원 해기사면허 발급·갱신 이제 더 쉽고 빠르게

어선 승선경력증명서에 승선경력 출항횟수 입항횟수 옆면에
첫 승선날부터 몇 년 몇 개월인지 나오게 개선되면 좋을 거 같아요.

해상업무니까 지방 해운항만청 지역 수산업 협동조합
과 서로 공유해서 선박 당사자 동의시 민원 서류를
팩스로 공유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승선원 출항횟수를 조회해야 하는데 현 시스템
으로는 출항일수는 조회할 수 없다고 하니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국민 불편사항 개선

해기사면허 발급·갱신 안내

해기사면허 발급·갱신 시 필요한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 회 절 차

해 양 경 찰 청

어선 승선정보 제공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선 원

정보이용 동의

해 수 청

어선 승선자료(승무일수) 조회

파출소·출장소로 방문하여 선박서류(①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②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발급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 및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활성화에
맞추어 「정부24」를 통해 선박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는데요~ 어선원의
해기사 면허 발급·갱신에 필요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한 불편을
다시 한번 개선하였습니다.

’23. 9. 18.(월)부터 어선출입항시스템과 해양수산부 포트미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지방해
양수산청에서 즉시 해기사면허 발급·갱신이 가능합니다!!

개선 전	개선 후
민원인 행정관서 이중 방문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발급 차 해양경찰 파출소 → 해기사면허 발급 차 지방해양수산청 방문	→ 민원인 편의 제고 해기사면허 발급·갱신 시 지방해양수산청 바로 방문(해양경찰 파출소 방문 불필요)
증명서 출력에 종이 과다 사용 - 최대 5년간 승선기록 출력 시 약 400페이지 이상으로 4면 1쪽으로 출력하여도 1회 발급 시 100장 이상 종이 소모	→ 종이 연간 약 390만장 절약 연간 해기사면허 발급·갱신 약 39,000건 × 100장
공무원 행정력 낭비 - 공무원이 출력된 서류 확인하여 승무일수 수동 계산	→ 업무 효율성 향상 시스템상 승무일수 자동 계산 확인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유통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개인정보유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3

수상안전교육, 고민은 NO!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군산·여수·속초·동해·제주 해양경찰서 시행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인터넷을 할줄 몰라서요... 교육 받으러 멀리가기도 힘들구요.”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직접 가야하나요?”



국민 불편사항 개선

안전교육 횟수의 부족과 교육장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2. 10월부터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온라인 교육을 개설·운영 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종면허증 소지자 306,121명 중 60대 이상의 노령층 61,359명 약 20% 차지**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종면허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여 「교육 수강에서 면허(갱신) 발급」까지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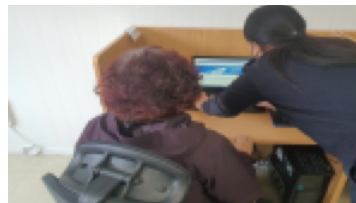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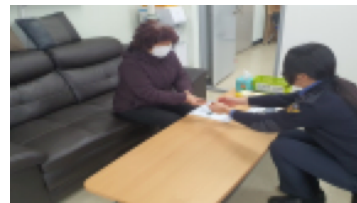
STEP1 온라인 안내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장 안내



STEP2 1:1 맞춤형 서비스

수상안전교육 접수~수강까지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STEP3 최종 발급

교육이수 확인 후 면허(갱신) 발급



다만, 현재 일부 해양경찰서만 시행한다고 하니 문의 사항은 인근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전화주세요~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4

시각적 경고로 차량 침수사고 예방, 선착장 침수 경계선 도색 도입

평택 해양경찰서 시행

“선착장 주변에 따로 주차장도 없고, 낚시배는 나가야 해서 급히 선착장 빈자리에 주차했는데, 오랜 시간 가족의 발이 되어준 소중한 제 자동차가 침수 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급하게 주차 하다 보니 주차 금지 표지판도 못보고 침수 구역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제 과실도 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위한 노력

다수의 행락객이 방문하는 항·포구 특히 선착장의 경우 차량 침수는 물론 해상 추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간조 시 선착장 주차 → 만조 시 침수 사례로 이어지고 차주 연락처가 없어 안전지역 이동 등 긴급 조치 불가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택 해양경찰서 관내 선착장 안전사고 발생건수 총 21건(침수우려 차량 이동 조치 건수 제외)**

이에 평택 해양경찰서에서는 경기남부수협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평택·당진항 서부두 물량장에 “선착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디자인 적용 침수·경계선」 도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 6. 7.(수) 도색 이후 현재까지 이곳에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항포구에 사업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차량 이동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안가 주차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 자체 매뉴얼을 제작, 관내 파출소에 배포하여 연락처 없는 차량 침수위험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고 하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해양경찰입니다!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5

연안안전교육도 쇼츠(Shorts)로~ 안전문화 확산에 새로운 바람

인천해양경찰서 신항만파출소 시행

“ 요즘 애들은 짧아야 봐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가 유행이잖아요~
교육 영상을 임팩트 있게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면 사람들 많이 봅니다. ”

“ 요즘 갯벌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고를 예방하려면 갯벌에 들어가기 전 물때시간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

“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게 거기서 거긴줄로 알았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줄은 몰랐어요~
일반인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한 바다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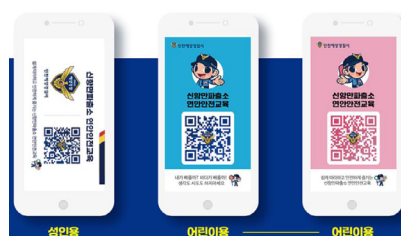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신항만 파출소는 최근 증가하는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관이 주인공이 되어 쇼츠 등 트렌디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 관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영상 QR코드가 삽입된 홍보물을 배포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 집중도 향상 및 트렌드 고려, 1분 미만 연안안전교육 영상 제작·배포

*<https://www.youtube.com/@educg/shorts>

공동연안안전 교육				갯벌 특화 교육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수영 방법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생명을 지키는 구명조끼 착용법	생명을 살리는 하임리히법	갯벌체험 할 때 갯벌 내 안전수칙	갯벌에 빠졌을 때 안전한 탈출 방법	긴급 구조요청은 해양안전 해로드
생존수영방법	심폐소생술	구명조끼착용법	하임리히법	갯벌내안전수칙	갯벌탈출방법	해로드사용법

2 자체 제작 교육자료 및 QR 코드 활용 교육



연령대 맞춤 연안안전 교육카드 제작



와블러(홍보물) 이미지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6

민·관이 하나된 마음으로 만드는 깨끗한 바다

“ 바다에 해양쓰레기 문제로 심각합니다. 통발어선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군산, 부안, 전남에서 제주까지 이어져 바다에 통발을 넣기만 하고 되가져 오지는 않습니다. ”

“ 바다 쓰레기는 레저선박에 흥기입니다.
민·관·군 합동으로 바다쓰레기 청소의 날 지정해서 일년에 한번이라도 해주세요. ”

“ 항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쓰레기 단속과 바다 정화에도 앞장서는 해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깨끗한 바다를 위한 노력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상 부유쓰레기로 인한 선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굿둑 방류에 따라 육상에서 기인한 초목류가 목포항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은 '23. 7. 17.-8. 8.까지 약 23일간 목포항 주요항로 등 해상 부유쓰레기 약 13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중, 섬지역 쓰레기 등 해양쓰레기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3. 8월 기준 171회, 415톤 수거),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비치코밍*, 플로깅**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치코밍(beachcombing)

: 해변(beach)을 빗질(combining) 하듯이 조개껍데기, 유리 조각 따위의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어 모으는 것

**플로깅(plogging)

: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7

축제처럼
즐기며 배우는 해양안전,
동실동실 해양페스타

“1년에 몇 번이라도 캠프를 열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체험하면 훨씬 효과있죠.”

“그냥 앉아서 들으면 아무소용 없어요.
자기가 참여하고 생존수영 해보고 체온을 보온하려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걸 실제로 배우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어린이 맞춤 해양안전교육

해양안전교육~ 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단순 주입식 교육은 효과가 없기 마련이지요~ 해양경찰청에서는 2023년 부모, 아이 모두가 ‘안전’을 만족하는 축제형 안전체험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동실동실 해양페스타」는 ‘23. 7. 8.(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총 3,500명(어린이 1,000명, 생존수영 200명, 성인 2,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존수영, 응급처치 등 어린이 체험위주의 활동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해양안전 교육이 되었습니다. 올해 개최를 통해 여름 해양체험 페스타로 자리매김하여 맘카페, SNS 등에 매년 개최해달라는 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국단위로 지속 개최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응급처치 체험>



<구명별 체험>



<생존수영>



<해양안전 체험부스>



<인증사진>



<생존수영 메달 인증>



<국민의 소리> 건의사항 08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가 산골이라도 찾아가서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합니다.”

“물 사고는 꼭 해안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잖아요.
해안가 학교 위주가 아닌 내륙에 있는 학교로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맞춤 해양안전교육

해양경찰청은 연안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 위주에서 성인, 소외계층으로 확대하고, 해안에 근접한 지역에서 내륙지역의 학교까지 포함하여 교육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어린이집 등 단체에서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청해주시면 해양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1.

국민패널 정책토론회 총 2회 개최

국민패널 정책토론으로 국민의 소중한 의견 수렴

해양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패널 정책토론회를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①'23. 8. 8.(화) 16시, ②8. 12.(토) 13시에 국민패널 소그룹이 모여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강화' 및 '해양경찰 공공데이터 개방확대'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 발언으로 유용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렇게 수렴된 국민패널 주요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소속기관 순회교육 실시

변화관리를 위한 국민만족도 향상 교육

국민 경험에 따른 사례중심의 교육 강의를 개발하여 현장직원의 국민만족도 이해도 증진 및 개선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국민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한 V.O.C*를 분석한 국민 불편사항과 공공기관 국민만족도 최신 트렌드 및 해양경찰의 변화관리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접점 현장직원의 국민만족도 향상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V.O.C : Voice Of Customer(고객의 목소리)



해양경찰을 응원해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록.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 및 국민패널 축하메시지

1.

해양경찰 연혁

해양경찰대 내무부 1953~1991	○ 1953. 12. 1.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 신설
해양경찰청 경찰청 1991~1996	○ 1991. 7. 23.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1996~2008	○ 1996. 8. 8.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
국토해양부 2008~2013	○ 2008. 2. 29.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해양수산부 2013~2014	○ 2013. 3. 24.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민안전처 2014~2017	○ 2014. 11. 19.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2017~	○ 2017. 7. 26.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 신설

2.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



'23. 8. 28.(월) 인천광역시 아라서해감문에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3. 창설70주년 국민패널 축하메세지

안전한 바다소리 화이팅~

바다의 사나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열정의 국민패널 양인석 -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해양강국 대한민국

- 국민패널 김중현 -

경직된 해양경찰 문화를
해양경찰 70주년을 맞이하여
좀 더 자유롭고
국민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 국민패널 정민두 -

해양경찰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해양안전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바다소리 ♥ -

K-대한민국의 17개 시도, 구군의 읍면동에 활동하시는
해양 경찰 직무를 하시는 분들의 기여와 함께 보다 나은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한 AM에서 FM으로 가는
해양경찰청 활성화 및 발전을 축하 드립니다.

- 전수경 -

바다소리의 발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정희 -

대한민국의 국민패널
바다소리의 무궁한 발전 및
번영을 기원하며 항상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소리가 되어주시길
기대하며 항상 응원합니다

- 나운만 -

해양경찰 70주년 축하합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인 것 같습니다.
교육 또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노경순 -

해양경찰과 해군,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경계를 일반국민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
일본 어선이 영해를 침범할 때 해경이 활약하는 모습과 불법 레저
(수상스키)의 횡포를 제재할 때 너무 멋지고 든든하여, 해경이 왜
있는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이번 패널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커담아 듣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해경탄생 70주년 1953년 첫 탄생 이후 단순
경찰대에서 경찰청까지 발전한 이유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맞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국민패널 홍성현 -

해양경찰 7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해양 안전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승선하며 1년만에 입항한 한국 연안에서 들리는
해경의 VHF.16 목소리를 들을 때 안도감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70년동안 바다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70주년을 축하합니다.

- 2급 항해사 조영욱 -

해양경찰 70주년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나라 바다의 지킴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다소리 김민호 -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축하 드립니다.

